연세의사학 제25권 제1호(통권 제51호) 2022년 6월 Yonsei *J Med Hist* 25: 63-99 Jun 202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의학사연구소
http://dx.doi.org/10.35276/yjmh.2022.25.1.63

연구노트

신촌 연세의료원의 건설에 관한 연대기적 기초조사

이경록*

Ⅰ. 머리말
Ⅱ. 미약한 시작: 흉곽병원의 건설 논의
Ⅲ. 건축 대상의 확대: 세브란스병원과 간호학교의 포함
Ⅳ. 공사 중단 속의 두 변화: CMB 지원과 마스터 플랜 작성
Ⅴ. 신촌시대의 개막: 1962년 연세의료원의 규모
Ⅵ. 맺음말: '신촌 의료원'을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

Ⅰ. 머리말

역사 탐구의 기본은 사실(史實)의 추구이다. 특히 숫자로 이루어진 시간의 정리가 우선이다. 1962년 신촌으로 연세의료원이 옮겨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봉헌식 날짜가 『의학백년』에서는 1962년 5월 6일로 되어 있기도 하고, 6월 5일로 되어 있기도 하다.[1] 이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 않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봉헌 예배 순서」에는 '1962년 6월 5일(화) 오후 2시'로 봉헌식 시간까지 명기되어 있으며,[2] 다른 자료들에서도 한결같이 1962년 6월 5일로 되어 있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연구부교수, 의학사연구소, 의사학 전공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185, 193쪽.
2) 「연세대학교 의료원 봉헌 예배 순서」(「의료원장실 자료 7」,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그런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아주 충실하게 편찬한 『재정사』에서도 오류가 보인다. 『재정사』에 따르면 "1955년 2월 14일에 드디어 새 세브란스의 첫 부분으로 미 제8군 기념 흉곽병원을 건립하는데 합의한 약정서가 세브란스와 미 제8군 사이에 조인되었다…… 그리하여 1959년부터 공사가 새 계획에 따라 다시 진행되었으며"라고 하였다.[3] 이 문장에 들어있는 날짜는 각각 1955년 4월 14일과 1958년의 오식이 분명하다. 인쇄시의 잘못일 것이다.

하지만 건축 경과가 애매한 것들도 꽤 많이 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신촌의료원으로 이전하는 공사는 1년 넘도록 중단되었다. 하마터면 이전 자체를 포기할만한 심각한 사안이었다. 그 이유는 '환율 문제'였다고 한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그 환율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사』(80년사), 『의학백년』, 그리고 최근의 연구성과에 나오는 서술이다.

> 그런데 착공한 지 1년 6개월만에 예기치 않았던 환률 문제의 제기로 공사가 일단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 환률 문제도 본교 재단의 후원을 맡고 있던 아시아 기독교 고등교육연합재단과 정부당국과의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되어 만 1년 4개월만인 1958년 3월부터 다시 공사를 계속하였다.[4]

> 그런데 착공한 지 1년 6개월만에 예기치 않았던 환율 문제의 제기로 공사가 일단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 환율 문제도 우리 학교 재단의 후원을 맡고 있던 아시아 기독교 고등교육 연합재단과 정부당국과의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되어 만 1년 4개월만인 1958년 3월부터 다시 공사를 계속하였다.[5]

> 그런데 1956년 10월경 예기치 못한 환율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념병원의 공사가 일단 중단되었다. 이 위기는 아시아 기독교 고등교육 연합재단과 정부당국의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되어 1958년 3월부터 공사가 계속되었으며……[6]

---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58, 61쪽.
4) 연세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연세대학교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3판), 834쪽.
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189쪽.
6) 박형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공존, 2016), 305쪽.

문장을 살짝 다듬고 맞춤법 정도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문장이 50년 동안 반복되었다. 조금 더 조사해보면 이 환율 문제란 이승만 정부의 고정환율제 여파를 의미한다.[7] 어쨌든 향후에 『연세의료원 150년사』가 편찬될 텐데, 이 때도 지난 50년간 답습한 옛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궁색한 일이다.

이 글은 제목에 나온대로 '신촌 연세의료원의 건설 과정에 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기초조사한 것이다.[8] 신촌 연세의료원의 60주년을 돌아보는 글이기도 하지만, 길게 본다면 150년사 편찬을 위한 기초작업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의료원의 자료들(『연세춘추』, 『의료원소식』, 연세대학교 박물관, 동은의학박물관 등)과 외부의 자료들(국가기록원, China Medical Board 아카이브,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자료 분포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료 발굴과 함께 내용 정리가 차례로 준비되어야 새로운 서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문에서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2년까지의 신촌 의료원 건설 과정을 교내외의 자료와 연구서를 동원하여 추적하고자 한다. 다양한 연구들 가운데 특히 허정(1962년 연세의대 졸업, 재미, 정형외과)의 조사가 많은 도움이 된다. 아마도 모교에 대한 애정이 큰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학교를 후원한 재단 자료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협동재단(CB)과 연합재단(UB) 자료는 모두 허정의 연구를 재인용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자료를 조사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실(史實)에 내포된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신촌 의료원 건축 경과'가 세브란스라는 기관에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건축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의 의지가 조정되고 타협된 결과이기도 하고, 신촌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여건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기초조사만으로 신촌 의료원의 역사적인 의미를 단번에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은 이 글 맺음말에서 본문의 논의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신촌 의료원을 이해하는 관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

7) 본문에서 다시 서술하듯이, 원래 건축예산은 1달러=800환의 무역용 환율(Trader's Rate)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1956년 정부에서는 1달러=500환으로 환율을 고정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갑자기 1달러=500환으로 환율이 묶이자 재단의 지원금액(달러)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건축을 강행할 경우에는 150,000달러의 적자가 명백해졌다. 이에 재단에서는 공사 중단을 결정하였는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1달러=800환을 적용받으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8) 신촌 연세의료원의 건설에 대한 연구는 많은 편이 아니므로, 이 글 참고문헌에서 관련 성과를 제시하는 데 그친다.

II. 미약한 시작: 흉곽병원의 건설 논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과 거제로 피난을 떠났던 세브란스병원은 1952년 2월 29일 환도하였다. 김명선의 주도로 전직원이 기차 2량에 모든 장비를 싣고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 전쟁 중이어서 서울로 돌아오는 것은 아직 허가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미군에서 일하는 민간인 노무자들을 치료할 40병상의 노무자병원을 세브란스병원 내에 설치한다는 명분을 세웠다. 세브란스병원으로서는 미8군의 지원으로 병원 일부를 수리하는 동시에 의약품과 치료기구는 부평에 있는 미군병원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었다. 병원과 함께 의과대학도 복귀하여 개강하였고, 거제도의 임시 교실에서 운영하던 간호학교까지 모두 서울로 돌아왔다.[9]

당시 서울역 앞의 세브란스병원은 건물의 85% 이상이 파괴되었고 시설은 완전히 파손되었다.[10] 이에 따라 병원 전체를 허물고 새로 짓는 방안도 구상되었으나 철거 비용만도 감당하기에 벅찼다. 병원 재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비용이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될 무렵에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의 외국인 선교사가 있다. 스트러더스(Ernest Struthers)와 와이스(Ernest Weiss)이다. 스트러더스는 캐나다 연합장로교 의료선교사로 1953년에 내한하여 세브란스병원에 흉부진료소를 설치하였다. 세계 각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 만든 기독교세계봉사회에서 한국에 전개한 결핵사업의 책임자였다. 1954년 1월 그는 세브란스병원 구내에 처음으로 시범적인 흉부진료소를 설치했다.[11]

와이스는 스트러더스보다 약간 늦은 1954년 4월에 세브란스에 도착했다.[12] 그런데 먼저 와있던 스트러더스가 와이스에게 보낸 1953년 12월 22일자 서신이 남아 있다. 와이스가 한국으로 파견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내용이다. 스트러더스는 흉곽 외래진료소를 열려고 하므로 엑스레이 판독기와 필름 등을 가져와달라고 부탁하였다.[13]

---

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163쪽;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245-246쪽;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2015, 180쪽.

10) 와이스, 「건축보고」, 196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58쪽).

11) 여인석, 「연세합동과 의료원 체제 이후의 선교활동(1957-1993)」, 『연세의사학』 18(1), 2015, 165쪽.

12) 와이스는 원래 1953년 말에 한국으로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느라 1954년 4월에 한국에 도착했다(힐다 세이터 와이스, 안종희 옮김,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헌신』(청년의사, 2010), 227쪽).

13) 1953.12.22, 「스트러더스(Ernest B. Struthers)가 와이스(Weiss)에게 보낸 서신」(허정,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의 탄생」(수고본), 2021에서 재인용, 재단보유문서 188A-2718_0001pdf).

사실 와이스는 1년만 세브란스에 머무를 예정이었다.[14] 1953년에 한국 파견이 결정되면서 와이스가 럼보우(Thiobura T. Brumbaugh) 서기와 면담하였는데, 와이스의 임무는 '한국에서 감리교단과 협동재단(Cooperating Board)을 위해 현장을 답사해 보고'하는 것이었다.[15] 와이스는 일종의 감독관 내지 재단과의 연락창구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협동재단'은 세브란스의과대학을 후원하는 조선기독교교육협동재단(Cooperating Board for Christian Education in Chosen, CB)을 가리킨다. 협동재단(CB)에서는 일제하에서부터 세브란스에 현금과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1941년 제2차대전으로 잠시 철수했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지정 및 특별원조를 지속하였다.[16] 허정의 연구에 따르면, 협동재단(CB)은 일제의 사립학교 지원재단 설립령에 따라 1918년에 연희대학과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를 위해 뉴욕에서 설립되었다. 나중에는 뉴욕주법에 의해 다른 비영리재단처럼 1928년 10월 28일에 정식 등록되었다. 이사장은 호러스 언더우드의 형인 존 언더우드(John T. Underwood), 재정위원장은 루이스 세브란스의 아들인 존 세브란스(John L. Severance, 1926)이었고, 선교부의 중진들이 주축이 되었다. 각 교파의 교회들과 개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두 학교를 1957년까지 지원했다. 협동재단(CB)은 규모가 작았는데, 나중에 서술할 연합재단(UB)과는 이사와 임원진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친밀했으므로 보다 규모가 컸던 연합재단(UB)이 협동재단(CB)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관계였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의 두 기관은 1957년 1월에 병합을 결정하였다.[17]

와이스가 부임한 시기에는 세브란스의과대학과 연희대학교 사이의 합동이 한창 논의되고 있었다. 세브란스와 연희에서는 합동문제위원회(김명선, 이용설, 조동수, 백낙준, 신동욱, 김윤경)를 구성하여 1954년 4월에 전문 7장 35조의 합동헌장인 「재단법인 ○○대학교 기부행위」의 초안을 채택하였고, 이어서 4월 20일에 열린 연희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양교 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이사회 연석회의가 열려서 축조심의에 들어갔으나 세브란스 동창들의 통합반대론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18]

이때 미8군 노무자병원으로 상징되는 우호관계의 연장선 상에서 미군측으로부터 새로

---

14) 허정, 「신촌 의료단지의 탄생과 어네스트 와이스 외과교수」(수고본), 2022. 이하 허정의 글에서 자료를 재인용할 경우에는 '허정, 연도표기'로 줄임.
15) 1954.10.00?, 「와이스가 펜(William P. Fenn)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1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99쪽.
17) 허정,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의 탄생」(수고본), 2021.
18)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258쪽; 박형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공존, 2016), 288-291쪽.

운 제안이 세브란스병원에 들어왔다. 미8군이 미군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흉곽병원을 서울역 앞의 세브란스병원 구내에 건축해주겠다는 소식이었다. 미8군 사령관인 테일러(Taylor) 장군의 강력한 의지였다. 1954년 9월 11일에 와이스가 유진 스미스(Eugene Smith) 감리교 선교본부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는 그간의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다.[19]

이 서신에 따르면, 세브란스에서 인건비와 장비를 조달하는 조건으로 미군측에서는 400,000~500,000달러 가치의 건축재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소식을 듣고 와이스는 김명선과 함께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 한미재단(AKF), 미군대한원조단(AFAK)과 연이어 접촉하였다. 한편 연희대학교의 백낙준은 건축 부지와 공사용 석재의 무료 제공을 재확인해 주었다. 신촌에 기념병원을 짓겠다는 생각이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왔다. 미8군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건축자재들은 달러로 지급하는데, 이 비용을 일본과 한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 30%를 절감하고, 이 절감된 예산(달러)을 세브란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미8군과 논의한 것이다. 따라서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각각 200,000달러를 지원해주면 신촌에 흉곽병원과 연결된 새 세브란스병원의 건축까지 가능하다는 제안이었다. 다만 의과대학과 간호학교 기숙사의 건축비는 부족한데, 이 비용은 세브란스 졸업생들이 20,000~50,000달러를 자발적으로 내고 여선교부에서 간호학교 기숙사를 지어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5년에 걸쳐 진행하자는 계획이었다.

요약하자면, 흉곽병원 건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조금 더 비용도 투자해서 신촌에 세브란스병원, 의과대학, 간호학교 기숙사 등을 모두 옮기자는 것이 세브란스측의 판단이었다. 소요예산은 미군 400,000달러와 선교부(감리교와 장로교) 400,000달러로서, 일종의 매칭펀드 개념이었다. 이것은 와이스의 서신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아마도 부임한지 몇 달 되지 않은 와이스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고 김명선을 비롯한 세브란스의과대학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8군의 보웬(J. W. Bowen) 대령이 와이스에게 지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날짜는 1954년 9월 27일이었다.[20] 미군대한원조단(AFAK)의 1955년도 예산으로 400,000달러

19) 1954.9.11, 「와이스가 감리교 선교본부 유진 스미스(Eugene Smith)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20) 1954.9.27, 「미8군 보웬(J. W. Bowen) 대령이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한도 내에서 미국산 물자(건축재료와 기구)와 공병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건축될 흉곽 병동은 수술실 2개, 엑스레이실, 외래진료소, 처치실 12병상, 일반병실 48병상과 부대시설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수혜자인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대지, 건축 시행사, 인건비를 책임지고, 건축이 완공된 후에는 관리하는 조건이었다. 우선 진입로, 전기, 수도, 배수시설이 가능한 장소의 선정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원래 구상은 60병상 규모의 소규모 병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군측의 제안은 곧바로 이튿날인 9월 28일에 와이스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부에 보고되었다. 와이스의 보고를 받은 감리교 선교부 총무 유진 스미스가 협동재단에 이 내용을 전달하자, 협동재단의 서기 럼보우는 협동재단 총무인 펜(William Fenn)에게 급전을 쳤다. 당시 일본, 대만, 필리핀을 방문 중이던 펜에게 급히 한국을 방문하여 재단 대표로서 상의하라는 내용이었다.[21] 와이스는 10월 19일에도 장로교 대표인 존 스미스(John Coventry Smith)에게 서신을 보내서 펜이 한국을 꼭 방문하기를 요청하였다.[22] 존 스미스 역시 와이스의 서신을 협동재단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하였다.[23] 존 스미스는 세브란스의과대학을 후원하는 협동재단의 회장도 겸임하고 있었다.[24]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서도 재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8군의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와이스가 김명선(세브란스)을 대신해서 보웬에게 보낸 1954년 10월 15일자 서신에 담겨 있다.[25] 이에 따르면 이틀 전인 10월 13일에 세브란스의과대학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세브란스에서는 미8군의 제안을 감사하게 수용하면서도, 기념병원 자리는 조만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통합될 연희대학교 교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브란스에서는 이전부터 병원과 의과대학을 신촌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해왔으며, 이곳은 기념병원을 건축하기 위한 진입로, 전기, 상하수도 공사가 용이하기도 하였다.

이 세브란스의과대학 이사회의 논의는 중요하다. 이사회라는 공식 기구를 통해서 세브

---

21) 1954.9.28, 「와이스가 유진 스미스(E. Smith)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재단보유문서 188A-2718_0001pdf).
22) 1954.10.19, 「와이스가 존 스미스(John Coventry Smith)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23) 1954. 10. 29. 「존 스미스(John C. Smith)가 협동재단 집행부 퍼거슨(Mary Ferguson) 부서기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24) 허정,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의 탄생」(수고본), 2021.
25) 1954.10.15, 「와이스가 보웬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이 서신의 사본은 미8군 의무감인 로빈슨(Robinson) 장군과 협동재단(CB)에도 전달되었다.

란스의과대학과 연희대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하여 세브란스병원과 의과대학을 포함한 세브란스 전체의 신촌 이전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26] 와이스의 이 서신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정은 협동재단(CB)에도 전달되었다. 세브란스측에서는 기념병원의 전기와 난방 같은 설비를 장래의 세브란스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되, 100병상으로 확대하여 결핵환자들을 위한 수술 전후 처치실을 건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역제안하였다. 60병상 규모의 기념병원 건축이 점차 세브란스의 장래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바뀌면서 세브란스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원래 구상된 기념병원은 스트러더스의 항결핵사업과 연결된 흉곽병원이었다.[27] 화학요법 외에도 결핵 치료에는 외과적인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에게는 폐절제수술이 필요했다. 수술을 위한 입원실도 확보되어야 했다.[28] 그런데 결핵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흉곽병원의 성격이 외과병원 속성상 서서히 흉곽외과로 변모하게 된다. 1957년 세브란스병원장은 "홍교수(홍필훈-인용자)는 흉곽외과를 담임하였는데 한국에서 처음되는 흉곽외과 즉 폐장, 심장, 식도 등 수술에 좋은 성적을 냄으로 앞으로 흉곽외과병원이 낙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29]

사실 미8군에서는 기념병원을 신촌 부지에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였다가 현장을 둘러본 후에야 찬성하였다. 하지만 미8군으로서는 기념병원이 자신들의 사업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세브란스병원 전체의 건축 계획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은 채 기념병원을 세브란스병원 전체와 연결된 일부로 짓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더 나아가 미8군에서는 지원금 400,000달러로 세브란스병원 전체에 필요한 난방, 전기, 수도시설 등을 마련하는 것도 허용하였다.[30]

미8군의 제안에 따라 협동재단 총무인 펜(William Fenn)은 와이언트(Paul Wiant)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 와이언트는 1948~1950년에 와이스와 함께 중국에서 항결핵훈련소 건축에 참여했던 건축사(architect)였다.[31] 내한한 와이언트는 취사실, 세탁실, 난

---

26) 「YONSEI UNIVERSITY BULLETIN General Catalogue Number 1959-1960」(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27) 와이스, 「건축보고」, 196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58쪽).
28) 여인석, 「연세합동과 의료원 체제 이후의 선교활동(1957-1993)」, 『연세의사학』 18(1), 2015.
29) 세브란스병원장, 「세브란스병원장 보고 1956년 4월~1957년 3월」, 1957(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863).
30) 1954.10.00?, 「와이스가 펜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3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58쪽; 힐다 세이터 와이스, 안종희 옮김,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헌신』(청년의사, 2010), 157, 164, 180, 199쪽.

방, 수도시설을 포함한 기념병원 건축비로 265,000달러를 추산하였다.[32] 265,000달러는 지원금 400,000달러의 70% 정도이므로, 와이스의 구상대로 나머지 30% 지원금을 세브란스병원 건설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군에서는 곧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1954년 11월 7일자 와이스 서신에 의하면, 펜이 출국한 다음 날 미군에서는 설계사 등을 파견하였다. 또한 공병대를 동원하여 간호학교 건물터까지 불도저로 닦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지하수 관정 작업도 준비하였다. 와이스는 재단측에 공사 착수 여부를 1주일 내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결정이 늦춰지면 미군측에서 장비를 철수하기 때문이었다.[33] 하지만 펜은 흉곽병원 외에 세브란스병원까지 짓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약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데다 와이스의 보고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였다.[34] 결국 신촌 부지의 정지작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아직도 미국의 협동재단에서는 세브란스 전체의 신촌 이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8군 기념 흉곽병원조차 착공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로 1954년 겨울이 지났다. 1955년 2월 10일 참다못한 미8군에서는 부참모장인 디즈니(Paul Disney) 장군이 와이스에게 재촉을 하였다.[35] 세브란스측이 흉곽병원의 건축 재료를 신청하기 위한 건축계획서조차 보내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미군측에서는 회계년도 마감인 1955년 6월 30일까지 건축계획서를 입수하지 못하면 미군대한원조단(AFAK)의 400,000달러는 집행할 수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만약 필요하다면 세브란스측에 미군 설계기사를 지원하여 건축계획서를 완성하도록 도와주겠으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하였다.

III. 건축 대상의 확대: 세브란스병원과 간호학교의 포함

아예 흉곽병원 건축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세브란스측에서도 공사 준비에 돌입하였다. 1955년 3월 26일에 흉곽병원의 대지에 대한 측량과 지질검사에 착수한 것이다.[36] 한 달도 안 된 4월 14일 세브란스와 미8군 사이에 협약서(Text of Agreement

32) 1954.11.7,「와이스가 펜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33) 1954.11.7,「와이스가 펜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34) 1954.11.17,「펜 총무가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35) 1955.2.10,「미8군 부참모장 디즈니(Paul Disney) 장군이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36)「延世메디칼센터 工事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延

signed between Severance and Eighth U. S. Army)가 체결되었다.[37] 신촌의 흉곽병원 건축을 위해서 미군측에서는 건축재료 400,000달러 및 의료장비 70,000달러와 필요한 기술적 원조를 담당하며, 세브란스의과대학·병원측에서는 미군측이 지원하는 것 이외의 재료, 장비, 노동자를 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미8군 기념 흉곽병원(the Eighth U. S. Army Memorial Chest Hospital)'은 세브란스의과대학·병원과는 분리된 단위(a separate unit)이자 세브란스의과대학·병원 건물과 연계된 일부(integral part)이기도 하였다. 독자적인 기념사업이기를 원하는 미8군의 입장과 신촌 의료원의 일부이기를 원하는 세브란스측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이었다. 협약서의 "허용된 물품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한다"라는 문구에 의거해서 세브란스측에서는 앞서 언급한 30%의 예산을 절감하여 신촌 의료원 전체의 건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한편 이 흉곽병원의 목적으로는 "흉곽질환의 연구, 치료와 내외과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으로서…… 세브란스가 환자들의 입원을 결정하되, 최대한 가능하면 치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라고 표현하였다. 결핵 치료를 위한 흉곽병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외과병원으로서의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아울러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는 공공성을 표방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Stars and Stripes* 보도에 의하면 이 흉곽병원은 4층짜리 단독 건물이었다.[38]

협약서에서는 협약식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조속한 공사 착수를 강제하는 조항이었다. 마침내 1955년 4월 23일 기공식이 열렸다. 이어서 4월 26일 대지 목책시설 공사를 필두로 5월 17일 기초공사 착공, 5월 24일 건축사무소 건물 건립 착수, 5월 26일 콘센트창고 건립 착공과 미국인 건축사 크레이튼(Roy Creighton) 취임까지 순조롭게 이어졌다.[39] 이때 내한한 크레이튼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건축책임자로서 그해 가을까지 건축을 지휘하였다.[40]

世메디칼센터 建築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37) 4/14/1955 Text of Agreement signed between Severance and Eighth U. S. Army(허정, 2021, 재단보유문서 180A-1982_0001pdf).

38) *Stars and Stripes*, 1955.4.25.

39) 「延世메디칼센터 工事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40) 와이스, 「건축보고」, 196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58쪽).

그림 1. 1955년 4월 14일 세브란스와 미8군의 협약서 체결식 장면(출처: 동은의학박물관)

이어서 6월 6일에는 미8군으로부터 자재가 입하되기 시작하고, 6월 11일에는 콘센트창고 공사가 완료되며, 6월 13일에는 임시사무실 기공식이 열렸다.[41] 크레이튼이 6월 8일에 보낸 보고에 따르면, 이미 기념병원 부지의 정지작업은 끝냈고, 나머지 병원 부분의 부지를 불도저로 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시멘트의 1차 배달분과 모래가 도착했고 자갈도 쌓아놓았으며, 건물 중앙부의 기반공사도 끝냈는데, 기반 확인을 거쳐 곧 시멘트를 부을 예정이라고 하였다.[42] 빠른 진행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위의 협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브란스를 대표'한 김명선과 와이스, 미8군 부참모장인 디즈니(Paul A. Disney), 미8군 서울지구사령관인 윌슨(Edward L. Wilson)이었다. 협약서에서는 '협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공사에 대한 협동재단의 공식 승인을 얻기 전이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와이스는 미

41) 「延世메디칼센터 工事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42) 1955.6.16, 「퍼거슨 서기가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국으로 돌아가서 6월 1일 뉴욕의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병원 건축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새 의료원의 신축 필요성과 후원을 역설하였다. 이때 이사회에서는 투표를 통하여 재단이 건축기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게 된다.[43]

하지만 이때 협동재단에서 승인한 공사의 범위는 흉곽병원에 대한 400,000달러 지원인 듯하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간호학교 기숙사, 새 세브란스병원, 의과대학에 대한 재단의 추가 지원이 현안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와이스는 세브란스에 계속 근무하기로 하고 그해 10월에 부인 힐다 와이스, 두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44]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인 11월 12일에 와이스는 협동재단에 간호학교 건설 비용으로 96,060달러가 추산된다고 보고하였다.[45] 이어서 12월 22일에 와이스는 병원 한 층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명세서를 재단에 보냈다. 그는 재료와 인건비를 모두 합쳐서 29,987,070환이 소요된다고 설명하였다.[46]

이때 간호학교가 별도로 계속 언급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이다. 간호학교는 원래 세브란스병원의 부설기관인 세브란스 고등간호학교였다. 1953년 5월에 서울로 복귀하면서 간호학교의 샌들 교장은 세브란스 간호학교로 개칭하였다. 이와 동시에 입학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상향 조정하고, 교적은 문교부 고등교육국에 두어 초급대학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샌들은 간호학교의 자율성과 발전은 병원이 아니라 재단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일 때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간호학교에서는 별도의 예산 편성과 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1954년 샌들 교장의 뒤를 이어 홍신영이 간호학교 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시기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통합하려던 때였으므로, 이에 발맞춰 간호학교 역시 간호대학 승격을 모색하였다. 여러 난관 끝에 세브란스 간호학교는 1957년 2월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승격하여 3월에 입학식을 거행하였다.[47] 따라서 신촌에 의료원을

---

43) 허정, 「신촌 의료단지의 탄생과 어네스트 와이스 외과교수」(수고본), 2022.
44) 힐다 세이터 와이스, 안종희 옮김,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헌신』(청년의사, 2010), 232쪽.
45) 1955.11.12, 「와이스가 협동재단에 보낸 서신」(허정, 2021).
46) 1955.12.22, 「와이스가 협동재단에 보낸 서신」(허정, 2021).
47)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간호를 선도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00년사』(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08), 155-158쪽;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역사위원회, 『연세간호 : 한국 간호교육의 산 역사 1906~1970』(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19), 254, 318쪽. 그런데 당시 의대학장의 보고는 날짜가 다르다. 세브란스 간호학교는 1957년 3월 12일에 문교부로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로 인가되었다고 하였다(의과대학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보고 1956년 4월~1957년 3월」, 1957(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863)). 참고로 문교부에서 간호대학으로 인가한 것은 1968년 12월 4일이다.

건설할 무렵에는 간호학교가 재단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11월 14일자로 와이스가 협동재단에 보낸 서신에 의하면, 와이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흉곽병원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미군대한원조단(AFAK)에서 더 도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간호학교 기숙사나 의과대학 건물이나 새 병원에 대한 추가 원조를 알아보겠다고 적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군과 함께 하는 이 사업은 협동재단도 재정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었으므로, 공사 규모가 확대되면 재단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와이스는 미군의 추가 원조로 재단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재단에서 확장 공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미군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단 부담이 감소된다고 설득하였다.[48] 이처럼 와이스와 세브란스측에서는 신촌으로의 완전한 이전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를 후원하던 미국의 협동재단에서는 불안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11월 29일에 펜(William Fenn)이 와이스에게 보낸 답신에서는 '미군대한원조단(AFAK)의 추가 원조 소식은 기쁘지만 재단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착잡하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재단에서는 이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질 것이며, 재단만이 유일하게 부담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펜은 신촌에 건설될 세브란스 단지(complex)의 규모, 성격, 비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세브란스측이나 다른 곳에서의 재원 확보 가능성을 물었다. 현재로서는 길고 힘든 겨울을 맞이했다고 펜은 적었다.[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스는 1956년 1월 5일 간호학교의 설계 도면을 재단에 보고하면서 미8군의 원조를 교섭 중이라고 알렸다.[50] 반면 1월 18일에 펜(Fenn) 총무는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세브란스의 사업들을 협동재단이나 각 선교재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담당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51] 이어서 5층으로 구성된 간호학교와 기숙사의 건설 도면에 대해서는 전체 단지의 주변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낮은 건물 2동을 건축하라는 재단의 의견을 제시하였다.[52] 1년쯤 지나서 재단에서는 건물 2동으로 이루어진 간호학교 설계도를 세브란스에 보내왔다. 교실·실험실·도서실로 이루어진 교육용 건물과 기숙사 건물이었다.[53]

---

48) 1955.11.14, 「건축위원장 와이스가 협동재단에 보낸 서신」(허정, 2021).
49) 1955.11.29, 「펜이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50) 허정,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의 탄생」(수고본), 2021.
51) 1956.1.18, 「펜 총무가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52) 1956.2.24, 「서신」(허정, 2021).
53) 1957.4.18, 「퍼거슨이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사실 펜은 이미 11월 29일자 답신에서 '세브란스병원과 학교가 새 장소에서 더 훌륭한 기독교 봉사를 펼칠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하였다. 재단에서도 병원과 의과대학 이전은 수긍한 상태였지만 당시 재단의 재정 규모를 감안하면 재단 역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참고로 당시 재단 수입은 년 21,000달러였다.[54] 그런데 「세브란스병원 임시 예산안 1957년 4월~1958년 3월」을 보면, 이사회 보조금이 59,720달러였고 의과대학 '보조금'으로 54,000달러, 간호학과 '원조금'으로 8,000달러가 배정되었다. 이 '보조금'과 '원조금'을 모두 재단에서 지원한다고 간주하면 100,000달러를 넘는 액수였다.[55] 여기에 흉곽병원 건축을 위한 재단 지원금 400,000달러를 포함하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난감한 입장에 빠진 재단으로서는 세브란스측에 다른 재원의 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세브란스의과대학과 연희대학교의 합동 문제도 난관에 부딪혔다. 1955년 12월 15일 연희대학교 이사장 백낙준은 이사회에서 '앞으로 모든 이사회는 세브란스의대와의 합동이사회로만 모이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1956년 4월 24일 첫 모임이 소집되었으나 세브란스의과대학 동창회가 선임한 박용래·정진욱·정기섭 이사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남기고 퇴장하였다.[56] 여러모로 어수선한 시기였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와이스는 개인적으로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접촉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노력은 협동재단의 스미스 회장이 서울에서 세브란스측과 협의하여 차이나 메디컬 보드(China Medical Board, 이하 'CMB'로 줄임),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들에게 호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었다. 특히 CMB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1956년 2월 6일에 와이스는 재단에 보낸 서신에서 흉곽병원을 한 층 더 올려 5층으로 증축함으로써 환자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 방안은 미8군도 환영했지만, 증축에 따라 비용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건축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었다. 이 보고를 받은 재단측에서는 회장 존 스미스(John C. Smith)와 서기 럼보우를 한국에 파견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현장을 방문한 스미스 회장은 증축을 반대하였다.[57]

그럼에도 재단에서는 세브란스 전체의 이전에 노력을 기울였다. 원래는 지원금이

54) 1956.2.24, 「펜이 김명선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재단보유문서 188A-2720).
55) 세브란스병원장, 「세브란스병원장 보고 1956년 4월~1957년 3월」, 1957(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863).
56)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262쪽.
57) 1956.2.6, 「와이스가 재단에 보낸 서신」; 1956.3.5, 「펜이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 1956.3.28, 「퍼거슨이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400,000달러였지만, 1956년 2월 24일에 재단에서는 김명선 학장에게 간호학교 건축비 100,000달러를 포함하여 지원금 총액은 500,000달러라고 통고하였다.[58] 간호학교의 건축까지는 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서 5월 4일에 재단에서는 세브란스의 현황과 재건계획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서 미국 노스웨스턴의과대학의 로즈(Paul S. Rhoads)를 파견하였다. 2주간 세브란스에 머문 로즈는 세브란스 재건이 파손된 건물 수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새로운 메디컬센터 건설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함으로써 신촌 의료원의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의학교육과 관련해서 로즈는 교수진의 부족함과 함께 열악한 학생 실습장비를 지적하였다.[59] 미국 의학을 표준으로 삼은 자문 내용이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신촌에서의 공사는 지속되었다. 1956년 4월 1일에 세브란스병원(Main Hospital) 본관으로 쓰일 건물터에 대한 지질검사가 시작되었다.[60] 이어서 5월 11일에는 상(上) 저수지를 착공하고, 6월 12일에는 흉곽병원의 정초식 및 상량식을 거행하였으며, 7월 7일에는 세브란스병원의 공사에 착수하였다.[61]

IV. 공사 중단 속의 두 변화: CMB 지원과 마스터 플랜 작성

이 무렵에 양교의 합동은 세브란스의과대학 동창회의 반대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가 1956년 10월 미국 협동재단(CB)의 펜(William P. Fenn)이 내한하여 10월 16일의 합동이사회에 참석하였다. 협동재단(CB)의 서한을 통해서 그는 양교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11월 말까지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학교 발전을 위한 400,000~500,000달러 원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현상태의 세브란스의과대학을 그대로 두면 학교의 질적 저하는 물론 다른 의과대학과의 경쟁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정기섭을 대리해 참석한 최영태 이사는 통합 후에 세브란스측의 재정 및 인사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합동에 찬성함으로써 세브란스의과대학 동창회의 반대론도

58) 1956.2.24, 「펜이 김명선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재단보유문서 188A-2720).
59)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252쪽;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2015, 186쪽.
60) 「延世메디칼센터 建築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61) 「延世메디칼센터 工事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延世메디칼센터 建築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철회되었다.[62]

이 결정을 토대로 교섭위원인 김명선과 원일한이 양교 합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였다. 1957년 1월 5일자로 문교부에서는 연세대학교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고, 1월 19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어서 3월 25일에 마지막 합동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해산과 동시에 새로운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5월 11일에는 연세대학교 개교기념식이 거행되었다.[63]

하지만 급속도로 진행된 양교 합동과는 반대로 신촌에서의 공사는 1956년 11월에 중단되었다. 당시 이용설 세브란스병원장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 "8군 기념 병원과 대학부속 병원 공사는 미화(美貨) 사용 문제로 작년(1956년-인용자) 11월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있사온 바 이 일도 속히 해결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낙성케 되기를 바라오며…….[64]

공사를 가로막은 것은 앞서 언급한 '환율 문제'였다. 원래 건축 예산은 한국은행이 승인한 1달러=800환의 무역용 환율로 수립되었는데, 갑자기 1달러=500환으로 고정되면서 지원금액의 실제 가치가 급락한 것이었다.

1956년 9월에 들어서 협동재단에서는 현지 자금을 사용하는 일과 꼭 필요한 일 이외의 모든 공사를 중단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와이스는 건축자금이 환율 관계로 조달되지 않아서 밧줄에 매달린 심정이라고 재단에 토로하였다. 와이스는 달러를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도 강구했지만 재단과 미군,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절대 불가하다는 반응을 들었다.

1957년 3월 27일자 와이스의 서신에 의하면, 공사 지연에 대해 미8군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세브란스의 김명선과 와이스는 미군 지휘관들과 회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

62)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263쪽; 박형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공존, 2016), 294-295쪽.

63) 『연희춘추』, 1957.1.15; 의과대학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보고 1956년 4월~1957년 3월」, 1957(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863);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265-267쪽; 박형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공존, 2016), 299쪽.

64) 세브란스병원장, 「세브란스병원장 보고 1956년 4월~1957년 3월」, 1957(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863). 「延世메디칼센터 建築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에도 "1956년 11월 1층 일반병원 공사 완료 후 설계 변경으로 중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하였다. 현재 환율로 건축을 강행하면 적어도 150,000달러의 적자가 난다는 내용이었다. 미군측에서도 양해는 하였으나 세브란스측에서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미군측에서는 미국대사관과 국무성에 도움을 청하였다. 미국의 재단에서도 미국 당국과 계속 접촉하였다. 동시에 와이스는 당시 미국 육군참모총장이던 테일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테일러는 1957년 6월 5일에 미국 극동사령관인 렘니처(Lemnitzer)와 환율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답신하였다.[65] 연세대 중앙박물관에는 이 무렵인 1957년 6월 17일자에서 1960년 6월 18일자까지의 「Ernest W. Weiss가 보낸 서신철」이 보관되어 있다.[66] 이 가운데 1957년 6월 17일자로 와이스가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방금 받은 테일러 장군으로부터의 서신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어서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이들이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단의 공사 중단 조치가 1년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자 와이스는 1957년 10월 21일 재단에 보낸 서신에서,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이 건축사업을 지속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67] 환율 사태는 그해 겨울 이승만 대통령이 선교용 환율을 재가해줌으로써 마침내 해결되었다.[68] 신촌 의료원의 건축사업이 1958년 3월에 재개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4개월만이었다.

하지만 환율 문제로 골치를 앓던 공사 중단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 작업이 완전히 멈춰선 것은 아니었다. 1957년 5월 20일에는 상 저수지가 완공되었고, 5월 25일에는 소아마비병원이 착공하였으며, 7월 9일에는 소아마비병원의 상량식이 거행되었고, 10월 10일에는 구내 우물 공사에 착수하였다.[69]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첫째는, 1956년 11월 29일 CMB(China Medical Board)의 의과대학 건축 지원 결정이었다. 공사가 막 중단된 시점이었다.

---

65) 이상의 내용은 다음 서신에 수록되어 있다. 1956.9.28, 「와이스가 재단에 보낸 서신」; 1956.10.11, 「퍼거슨 재단 서기가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 1957.3.15, 「와이스가 미국 육군참모총장 테일러(Gen. Maxwell D. Taylor)에게 보낸 서신」; 1957.3.27, 「와이스가 레인즈(Raines) 감리교 감독에게 보낸 서신」; 1957.6.5, 「테일러 대장이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 1957.8.9, 「와이스가 화이트(White) 태평양지구 육군사령관에게 보낸 서신」; 1957.10.25, 「퍼거슨이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66) 「Ernest W. Weiss가 보낸 서신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M10108275, M가1679).

67) 1957.10.21, 「와이스가 퍼거슨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68) 힐다 세이터 와이스, 안종희 옮김,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헌신』(청년의사, 2010), 260쪽.

69) 「延世메디칼센터 建築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延世메디칼센터 工事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에 앞서 1956년 연초인 1월 11일에 재단 서기가 와이스에게 보내온 서신에 의하면, 특히 CMB의 총재인 라욱스(Harold H. Loucks)는 세브란스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라욱스는 예전에 북경협화의학원(北京協和醫學院, Peking Union Medical College)에서 외과교수로 근무할 때 세브란스 교직원들과 자주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설을 비롯한 세브란스 졸업생들도 북경협화의학원에서 공부한 바가 있었다. 라욱스가 세브란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계획을 세워 CMB에서 지원을 받자는 것이 협동재단의 재정 확보 방안이었다.[70]

사실 CMB에서는 1953년부터 이미 세브란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71] 원래 CMB는 1914년에 록펠러재단이 설립한 기관으로서 기금은 나중에 약 20,000,000달러로 증액되었다. 중국의 의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CMB에서는 북경의 연합의과대학을 인수하여 북경협화의학원으로 개칭하고 미국의 유수 의과대학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CMB의 활동 목표는 북경협화의학원을 지원하고, 극동의 다른 지역이나 미국 내에 있는 그와 유사한 기관을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의 여파로 1951년 1월 20일 중국공산당 정부에서 북경협화의학원을 국유화하자 CMB로서는 중국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CMB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의과대학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원 대상국은 1952년부터 일본, 대만, 한국, 홍콩,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6개국에 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원 기관을 조사하기 위해 CMB의 총재 라욱스가 1953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CMB에서는 1953년에 25,000달러, 1954년에 150,000달러를 세브란스의 학생 실습장비 구입비로 원조하였다.[72] 이어서 세브란스 교수들의 해외연수비와 연구비 등을 매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CMB의 부책임자(Associate Director)인 맥코이(O. R. McCoy)는 1956년 11월 30일자 서신에서 세브란스의과대학 김명선 학장에게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건물 건축과 장비를 위한 450,000달러 지원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

---

70) 1956.1.11, 「퍼거슨 재단 서기가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71) CMB의 역사와 세브란스 지원 경위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연세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연세대학교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3판), 833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108-115쪽;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2015, 176-179쪽; 박형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공존, 2016), 306-307쪽).

72) 의과대학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보고 1956년 4월~1957년 3월」, 1957(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863).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결정은 하루 전인 11월 29일의 CMB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CMB의 지원금이 조선기독교교육협동재단(Cooperating Board for Christian Education in Chosen, CB)을 통해서 지급되므로 건물 건축계획과 진행은 협동재단(CB)과 긴밀히 소통하라는 것, 이 지원금은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이 연세대학교로 합동하는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집행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73] 앞서 살핀 것처럼 연세대학교로의 통합은 이미 기정사실이었지만, 학교를 직접 후원하는 협동재단(CB)이 지원 창구로 지정됨으로써 세브란스로서는 재정 측면에서도 신촌 이전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토대로 1957년 2월 20일에는 라욱스가 의과대학 건축 지원을 시사하는 서신을 보내왔으며, 4월 11일자 와이스의 서신에 의하면 맥코이가 이미 세브란스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다.[74] 이때는 공사 중단 기간이었지만 와이스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재료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라욱스는 와이스에 대한 4월 18일자 답신에서, 맥코이를 통해서 세브란스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새로운 제안을 덧붙였다. “환율 관계로 건축사업이 시간을 끌고 있는 지금을 새 의과대학 건물을 위한 세밀한 설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 준비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75] 신촌 의료원의 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이 의견이 구체화된 것은 새로 출범한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 ‘United Board’ 또는 ‘UB’)에 의해서였다.[76] 재단의 변모는 막 합동한 연세대학교의 출범과 궤를 같이 하는 변화였다.

허정의 연구에 의하면,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의 원래 명칭은 중국기독교대학연합재단(United Board for Christian Colleges in China)으로서 중국에 파견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미국의 선교지원단체였다. 그러다가 2차대전과 중국 공산화 이후에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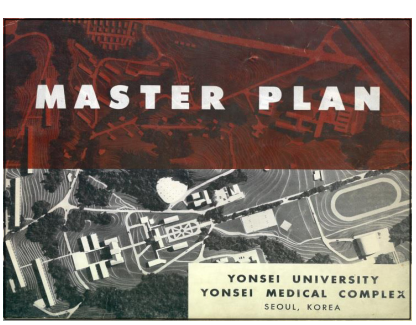
---

73) 「China Medical Board와의 교류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A가201010000670 3635).
74) 1957.4.11, 「와이스가 CMB의 라욱스(Harold H. Loucks) 회장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75) 1957.4.18, 「라욱스 회장이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76) ‘UB’ 또는 ‘United Board’라고 약칭하는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는 여러 단어로 번역되는데, 학교를 후원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연합재단’)이라고 번역하며, 회의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이사회’(‘연합이사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당시인 1961년 9월 19일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위원회의 의사록에서는 ‘United Board’를 ‘미국 연합 리사회’라고 표기하였고 『재정사』에서도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이 번역어를 존중하려는 것이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위원회, 「의사록」, 1961.9.19.(「법인이사회 의과대학 위원회 회의록」,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62쪽).

른 나라의 대학들을 후원하게 되었다. 1957년 1월 5일에 연세대학교로의 합동이 이루어지자 1월 23일에, 그동안 세브란스의과대학을 후원하던 조선기독교교육협동재단(Cooperating Board for Christian Education in Chosen, CB)과의 병합이 의결되었다. 두 기관의 병합조항 제6항에 '연합재단(UB)은 연세대학교에 대한 이익을 배려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협동재단(CB)으로부터 이월 받은 기금으로 신촌 의료원의 건축을 지원하였다.[77] 연합재단(UB)은 미국 감리교, 미국 장로교, 캐나다 연합교회, 호주 장로교의 선교위원회로 구성되었다.[78]

둘째는, 연세대학교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의 작성이었다. 연합재단(UB)이 디트로이트의 건축회사(Smith, Hinchman & Grylls Associates, Inc)에 요청한 결과물이었다. 연합재단(UB)에서는 CMB 등과 함께 이 마스터 플랜을 검토한 후에, 건축회사의 직원을 11월 18일에 한국으로 파견하여 설명하였다.[79] 이 마스터 플랜은 나중에 연세의료원의 완성으로 직결되는 실제 청사진이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마스터 플랜의 정식 명칭은 「MASTER PLAN -YONSEI UNIVERSITY YONSEI MEDICAL COMPLEX」이다. 문서의 앞면을 살펴보면, 연합재단(UB)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어 연세대학교의 백낙준 총장 및 김명선 부총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다. 다시 말하면, 연세의료원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계획안이 아니었다. 연합재단에서는 연세대학교 전체의 발전 방안을 구상하면서 백낙준 총장과 김명선 부총장과도 그 내용을 긴밀히 공유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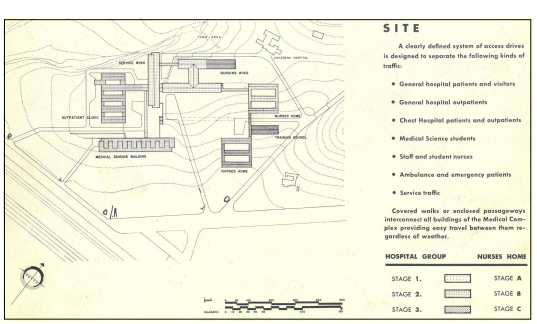


그림 2. 1957년 작성된 〈마스터 플랜〉(출처: 동은의학박물관)

77) 박형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공존, 2016), 296쪽; 허정,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의 탄생」(수고본), 2021.
78) 「YONSEI UNIVERSITY BULLETIN General Catalogue Number 1959-1960」(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Curran, 「Medical Educational and Hospital Activities」, 1963(허정, 2021).
79) 1957.10.25, 「퍼거슨이 와이스에게 보낸 서신」(허정, 2021).

이 자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YONSEI UNIVERSITY'와 'YONSEI MEDICAL COMPLEX'의 발전방안이 각각 상술되어 있다. 이 가운데 YONSEI MEDICAL COMPLEX(의료원)는 미8군 기념 흉곽병원, 세브란스병원, 의과대학, 외래진료소, 간호학과의 5가지로 구성된다.

의료원의 확장 방향으로는, 흉곽병원 바로 옆에 수경원(King's tomb)이 있으므로 수경원 반대편쪽(현재의 의과대학과 종합관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흉곽병원 100병상과 세브란스병원 200병상의 규모이며,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역 앞 세브란스 자산의 매각과 CMB의 도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는 500병상 규모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80]

이 마스터 플랜을 계기로 신촌 의료원의 공간 구조가 바뀌게 되었다. 원래는 미8군 기념 흉곽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완전히 독립된 건물로 구상되었으나 이제는 하나의 건물로 통합되었다.[81]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으로 건설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외래진료소가 들어서게 되었다. 철거하기로 한 세브란스병원은 원래 MIT공대를 나온 건축가 조자용(趙子庸)이 고층으로 설계한 것이었다.[82] 외래진료소가 독립된 건물로 처음 제시된 것도 이 마스터 플랜에서였다.

이 무렵의 공사 중단 기간에 일어났던 일을 1962년 6월 5일 봉헌식에서 와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건축공사는 근 3년간이나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3년간은 허송만 한 것은 아니었고 그동안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획되고 재검토되었다.
>
> 1. 급수 및 배전 문제 해결
> 2. 디트로이트에 있는 스미스 힌치맨, 그릴스(Smith, Hinchman & Grylls Associates) 회사에서 계획 전반에 걸친 재검토
> 3.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간호원 기숙사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master plan) 작성
> 4. 환율의 현실화[83]

---

80) Smith, Hinchman & Grylls Associates, Inc, 「MASTER PLAN -YONSEI UNIVERSITY YONSEI MEDICAL COMPLEX」, 1957(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실제로 이 업체에서는 의료원의 건설에 참여하게 된다.

81) 「YONSEI UNIVERSITY BULLETIN General Catalogue Number 1959-1960」(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82) 양재모, 『사랑의 빚만 지고……』(큐라인, 2001), 197쪽.

Ⅴ. 신촌시대의 개막: 1962년 연세의료원의 규모

환율 문제가 해결되자 마스터 플랜에 맞춰서 1958년 3월에 공사가 재개되었다. 3월 20일에는 미국의 건축회사에서 직원을 파견하였고,[84] 5월 5일에는 짓고 있던 세브란스병원(Main Hospital)의 건물 철거작업을 완료하였다. 마침내 1단계 작업에 해당하는 흉곽병원이 1958년 6월 28일에 완공되었다.[85] 이후의 공사는 다음과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사회적으로는 4·19와 5·16이 연이어 일어나던 와중이었다.

1958년 7월 10일	외래진료소 기초공사 착공
1958년 7월 11일	우물 공사
1959년 3월 28일	간호학과 기숙사 지질검사 착공
1959년 4월 1일	의과대학 기초 지질검사 착공
1959년 5월 23일	의과대학 대지 울타리 공사
1959년 7월 13일	의과대학 건물에 대한 실제 공사 착수
1959년 10월 1일	간호학과 기숙사 기공식과 소아마비병원 개원식
1960년 1월 18일	보일러 2대 입하
1960년 2월 4일	흉곽병원 4층으로 임시사무실을 □□(이전?)
1960년 2월 26일	건축사무실을 병동 북측으로 이전
1960년 3월 12일	의대 대지 내(內) 본교 교수 숙사 건물 철거
1960년 3월 23일	변전소 설치 제1차 회합
1960년 3월 29일	변전소 설치 제2차 회합
1960년 8월 27일	하(下) 저수지 공사 착공
1960년 11월 12일	여과조(濾過槽) 공사 착공
1960년 11월 28일	변전소 대지 정리 착수
1961년 4월 6일	상수도 공사 착공

8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60-61쪽. 1962년 상황에 비추어보면 '간호대학 및 간호원 기숙사'는 '간호학과 및 학생 기숙사'가 정확하다.
84) 「延世메디칼센터 工事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延世메디칼센터 建築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85) 박형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공존, 2016), 305쪽.
86) 「延世메디칼센터 工事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延

1961년 6월 17일	여과조 공사 완료
1961년 7월 31일	상수도 공사 완공과 하 저수지 완공
1961년 8월 22일	엘리베이터 조립 착공
1961년 9월 20일	의과대학 봉헌식과 간호학과 기숙사 봉헌식
1961년 10월 16일	구내도로 공사 착공
1961년 12월 5일	구내도로 개통식
1961년 12월 15일	변전소 공사 완료
1961년 12월 20일	변전소 송전 개시
1961년 12월 26일	의과대학 이전(각 교실)
1962년 1월 6일	상수도 송수(送水) 개시와 보일러 시운전
1962년 2월 23일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1962년 4월 2일	전화교환대실 신축 공사
1962년 4월 6일	정원 식수
1962년 5월 31일	전화교환대실 공사 완공[86]

위의 기록에서 1961년 12월 26일로 표시된 '의과대학 이전'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교실 숫자와 인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신촌으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의과대학 이병희 학장은 의과대학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1961년 12월 26일부터 1962년 1월 18일 사이에 기초학교실들이 신촌의 의과대학 건물로 이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1961년 12월 26일 해부학교실, 1961년 12월 27일 생화학교실과 병리학교실, 1961년 12월 28일 기생충학교실, 1961년 12월 29일 생리학교실과 약리학교실, 1962년 1월 18일 예방의학교실의 순서였다. 1962년 1월 22일에는 신촌의 새 캠퍼스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87]

世메디칼센터 建築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병희 학장의 보고에도 의과대학 신축 공사가 실제로는 1959년 7월 13일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다(「법인이사회 의과대학 위원회 회의록」,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87) 이병희 학장의 의과대학 신축에 대한 보고(「법인이사회 의과대학 위원회 회의록」,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이어서 1962년 2월 6일에 작성된 「신촌 이전 계획」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의과대학의 이전은 1961년 12월 26일~1962년 1월 19일이었고, 세브란스병원 이전은 1962년 5월 1일~10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역 앞의 기존 병원에는 치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혈액은행, 외래진료소 분소, 엑스레이 촬영실, 구매부서, 육아상담소와 산부인과 진료소가 잔류하기로 하였다.[88]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신촌 의료원의 공식적인 봉헌식 날짜는 1962년 6월 5일이다.[89]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의료원 정문의 아치에 걸린 1965년 6월 5일 행사명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미제8군 기념 흉곽병원 봉헌식'이다. 하지만 봉헌식순지에 인쇄된 행사명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봉헌식'이라고 되어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흉곽병원의 봉헌식을 신촌 의료원 전체의 봉헌식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참고로 의과대학 봉헌식과 간호학과 기숙사 봉헌식이 이미 1961년 9월 20일에 나란히 거행되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6월 5일 봉헌식은 미8군·CMB·연합재단의 대표들과 귀빈, 학교와 병원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 글과 관련하여 봉헌식에서 주목할 내용은 와이스의 「건축보고」였다. 와이스에 따르면 신촌 의료원은 대지 약 30,000평에 건물 총건평 8,600평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과 지원업무건물 4,120평(이 가운데 미8군 기념 흉곽병원 1,030평), 의과대학 2,367평, 간호학과 기숙사 750평, 외래진료소 1,500평이었다. 소요된 현금과 자재 등의 공사비와 그 재원은 『재정사』에 수록되어 있다. 공사 내역은 해외 원조, 국내 조달, 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액수는 달러, 환, 부동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공사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8) 「신촌 이전 계획」, 1962.2.6.(「법인이사회 의과대학 위원회 회의록」,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89) 봉헌식 날짜는 원래 5월 1일로 예정되었다가 6월 5일로 연기되었다(힐다 세이터 와이스, 안종희 옮김,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헌신』(청년의사, 2010), 314, 316쪽).

표 1. 신촌 연세의료원의 공사비와 재원[90]

구분			비용	비고
I. 해외 원조	1. 미8군	가) 기념병원용자재 및 시설	$655,000	
		나) 봉사료 및 병참지원	$95,000	
	2. 차이나 메디칼 보드	가) 의과대학 건축 및 시설비	$1,025,000	
	3. 감리교 선교부 해외 여전도회	가) 간호학교 기숙사 건축비	$215,000	
	4. 아시아기독교 고등교육연합재단	가) 병원 건축비	$775,000	
	5. 기타 해외 원조		$60,000	
소계			$2,825,000 (=3,672,500,000환)	1$=1,300환
II. 국내 조달	1. 외래진료소 건축비	가) 동창기부	10,241,267환	
		나) 사회유지	2,013,312환	
		다) 교직원	8,880,456환	
		라) 구 세브란스 대지 일부 매각 수입 중	$300,000	628,846,965환(1$=2,096환)이 계산상 맞음. cf. 390,000,000환 (1$=1,300환)
소계			650,000,000환	$310,114 (1$=2,096환) cf. $500,000 (1$=1,300환)
III. 대지 (구 연희대학교 재단 소유)			30,000평	
소계			$2,864,886 (1$=2,096환)	cf. $2,675,000 (1$=1,300환)
총계			$6,000,000	7,800,000,000환 (1$=1,300환) 또는 12,576,000,000환 (1$=2,096환)

9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61-63쪽. 참고로 건축위원회 와이스의 1962년 2월 5일자 건축회계보고에 의하면 병원 4,106.8평에 1,326,646.22달러, 의과대학 2,266.7평에 828,425.80달러, 외래진료소 1,769평에 355,103.20달러, 간호 기숙사 750평에 192,493.98달러로서 총 8,892.5평에 2,704,669.20달러(실제 총계는 2,702,669.20달러-인용자)로 계산되었다(MEDICAL CENTER BUILDING COMMITEE 1960~67(「법인이사회 의과대학 위원회 회의록」,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 의무위원회, 「의안」, 1962.2.7.(「법인이사회 의과대학 위원회 회의록」,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신촌 의료원의 건설비는 1962년 이전한 시점에 총 6,000,000달러로 평가되었다. 〈표 1〉에서 우선 해외 원조(미8군, CMB, 감리교 선교부 해외 여전도회, 아시아기독교고등교육연합재단, 기타 해외 원조)는 2,825,000달러(3,672,500,000환)였다. 이것을 보면 당시 환율은 1달러=1,300환으로 계산하고 있다.

한편 외래진료소 건축비에는 환과 달러가 섞여서 표기되어 있다. 건축비는 650,000,000환인데 동창, 사회유지, 교직원의 기부를 모두 합해도 21,135,035환으로 3.25%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인 96.75%의 비용은 '구 세브란스 대지 일부 매각' 수입의 일부인 300,000달러로 충당하였다. 그런데 1달러=1,300환을 적용하면 숫자가 맞지 않는다. 1달러=2,096환으로 계산해야 628,846,965환이 되어 외래진료소 건축비인 650,000,000환에 부합한다. 이 환율에 맞춰서 계산하면, 연희대학교 재단 소유의 30,000평은 2,864,886달러(1달러=2,096환) 내지 2,675,000달러(1달러=1,300환)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괄하자면, I. 해외 원조로 지은 병원·의과대학·간호학과 기숙사 건축은 2,825,000달러, II. 국내에서 비용을 충당한 외래진료소 건축은 310,114달러, III. 연희대학교 재단에서 제공한 부지 평가액은 2,864,886달러 정도로서 총 6,000,000달러로 평가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6,000,000달러 가운데 10,114달러 정도만 국내 기부금으로 충당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재원이었다.

한편 서울역 앞 세브란스의 한국전쟁 피해 규모는 873,000달러로 추산되었는데,[91] 1962년 신촌 의료원은 부지 평가액을 제외하더라도 3,135,114달러(6,000,000달러-2,864,886달러)였으므로 규모를 대폭 확장한 것이었다. 병상 규모를 살펴보면 1962년 봉헌식 당시에는 325병상(흉곽병원 95병상 + 세브란스병원 230병상)이었다. 그렇지만 향후에 병원에 있던 간호학과가 새 건물로 이전하면 그 공간에 50병상이 추가되고, 병원 공사가 완공되면 125병상이 또 추가되어 총 500병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마스터 플랜의 계획에 부합하였다.

그리고 위 표를 세심히 살펴보면 미8군에서는 750,000달러를, 연합재단에서는 775,000달러를 투입하였다. 원래 구상대로 양측에서 대등한 금액을 부담했음을 알 수 있

91)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247쪽. 박형우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세브란스의 피해액이 2,000,000달러라고 서술하였다(박형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공존, 2016), 284쪽).

다. 반면 CMB는 당초 계획인 750,000달러를 상회하는 1,025,000달러를 지원하였다. 의과대학 건물만이 아니라 시설비까지 포함된 액수이기는 하지만 CMB측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담했던 것이다.

앞서 외래진료소 건축과 관련하여, 환율이 1달러=1,300환에서 1달러=2,096환으로 급격히 변동했음을 언급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다. 이 무렵의 급격한 물가 앙등은 의료원 행정책임자 회의록에도 나올 정도였다.[92] 그런데 다른 날짜의 회의록을 보면 연합재단(UB)에서는 달러로 연세의료원을 지원해주었다. 이것은 연세의료원으로서는 환율상의 차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물가 상승은 서울역 앞 세브란스 자산(부동산)을 늦게 매각할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각을 무작정 늦출 수는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래진료소 건축이 국내의 기부금과 서울역 앞 세브란스 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였다. 그런데 기부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고,[93] 매각 역시 쉽지 않았다. 결국 외래진료소는 미완성 상태로 개원하였으며, 이자가 년 18%에 달하는 은행 융자와 사채까지 쓰는 지경이었다.[94]

외래진료소 건설비의 조달이 순탄하지 않았으므로, 건설 과정에서부터 서울역 앞 세브란스 부지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었다. 1959년 6월 20일자로 와이스가 연합재단(UB)에 보낸 서신에서는,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 자산(남대문교회를 제외한 모든 부지와 건물)을 305,000,000환에 매각할 계획인데, 1960년 5월 31일까지는 이전을 완료하고 명의도 매수자에게 넘어갈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95]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될 정도로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때 매각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1962년 신촌시대가 열렸다. 신촌으로의 이전 직후에도, 이른바 '분원(分院)'으로 불리던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의 처리방안이 시급하였다. 의무부총장, 학장, 병원장, 사무처장, 간호과장 등이 참석한 의료원 행정책임자 회의록에는 분원의 일부 대지의 매각을 둘러싸고 의과대학 위원회와 원매자들과의 구체적인 액수 협의까지 진행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분원의 건물 일부를 대여하기도 하였다.[96]

---

92) 「行政責任者會 會錄」, 1963.5.7.(『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9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166-170쪽; 「재정사 자료철」(동은의학박물관 소장).
94) Curran, 「Medical Educational and Hospital Activities」, 1963(허정, 2021).
95) 1959.6.20, 「와이스가 연합재단(UB)의 퍼거슨에게 보낸 서신」(「Ernest W. Weiss가 보낸 서신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M10108275, M가1679)).
96) 「行政責任者會 會錄」, 1962.8.29; 1962.9.11; 1963.1.9; 1963.8.14. 등(『행정책임자 회의록

연세의료원에서는 엄청난 이자로 인해서 파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으므로 대지 매각은 시급할 수밖에 없었다. 졸속으로 매각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의 물가 상승에 따라 매각 가격은 급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와이스는 동창들의 반대로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이 있었다고 술회하였다.[97]

1962년 6월 5일 봉헌식 이후를 살펴보면 8월 1일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을 연세의료원으로 개칭함으로써 '연세의료원'이 공식 출범하였고, 8월 10일에는 신촌으로의 이전을 완료하면서 공식 개원하였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는 학생수와 교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증축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1973년 3월에 의과대학 신관이 준공되었다.

1965년 5월 7일에 백낙준 총장은 창립 80주년을 앞둔 의과대학의 채플에서 강화(講話)한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세계가 좁아져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해서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외국 의료선교기관들과의 연결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서 에비슨이 꿈꾸었던 '종합병원의 이상(理想)'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98]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자면 '종합병원' 즉 '연세의료원(Yonsei Medical Center)'의 건설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도전이었다.

VI. 맺음말: '신촌 의료원'을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

이상에서 1962년 6월 5일 봉헌식까지의 연세의료원 건설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추적하였다. 연세의료원의 신촌시대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원래는 결핵을 치료하기 위한 60병상의 흉곽병원을 짓는 것이 목표였다. 소박한 출발이었다.

흉곽병원의 규모는 치료의 전후를 포괄하는 100병상으로 확대되고 그 성격은 점차 외과병원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서울역 앞 세브란스의 완전한 이전은 장담하기 어려웠다. 점차 흉곽병원이 200병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과 연계되면서 이른바 의료원 단지(complex)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연합재단(UB)의 지원만으로는 난망한 일이었다.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97) 허정,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의 탄생」(수고본), 2021.

98) 백낙준, 「延世 醫科大學 敎育의 세 줄기 潮流 -연세의료원 창립 제80주년에 부쳐-」, 『백낙준 전집 3 : 연세 교육의 이상』(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95쪽.

외래진료소를 별도 건물로 세우고 의과대학과 간호학교 건물까지 건립하는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았다. 다른 외부기관의 지원과 국내의 기부금 모금은 물론이고 서울역 앞 세브란스의 매각까지 모든 여건을 활용해야 했다. 이렇게 본다면 신촌으로의 이전은 우연과 노력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현실이 되었다.

이제 맺음말을 대신해서 1962년의 '신촌 의료원' 건설을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논의한 부분도 있지만, 자료를 검토하면서 시야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도 포함하여 서술하겠다.

첫째는 김명선과 와이스라는 개인의 열정을 꼽을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서울역 앞 세브란스는 폐허가 되었고 그 피해 규모는 873,000달러로 추산되었다. 병원의 복구와 재건이 당장 발등의 불이었다. 파괴된 건물의 제거비만도 막대했고, 도시계획으로 퇴계로가 확장되면서 세브란스 부지가 양단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세브란스의과대학 학장이었던 김명선의 유일한 목적은 세브란스의 존립이었다. 대다수 교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환도를 주도한 것이나 세브란스의과대학 동창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로의 합동을 추진한 것은 김명선의 신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는 세브란스가 단과대학 체제인 의과대학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으며, 세브란스의과대학 단독으로 종합대학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연희대학교와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99]

재원이 부족하지 않은 시절은 없지만, 본문에서 살폈듯이 1950~1960년대의 재정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예컨대 산부인과 주임교수로 로빈슨(J. C. Robinson, 1966~1969년 주임교수 재직)을 임명한 것은 한국인 적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100] 김명선이 학생들에게 "외국 인사들을 보거든 인사해라!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알아?"라고 당부하였다는 에피소드는 당시의 절박함을 잘 보여준다.

한편 와이스는 1954년 4월에 세브란스에 도착했으며, 그 이전에는 주로 중국에서 활동한 의료선교사였다. 그는 세브란스는 물론이고 한국과도 그리 인연이 깊지 않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와이스의 임무는 감리교단과 협동재단(CB)을 위해 한국의 현장을 답사해 보고하는 것이었다. 재단 활동을 위해서 1년 동안만 파견된 경우였다.

---

99)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257쪽.
1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편, 『한국 의학의 길을 원로들에게 묻다 1』(역사공간, 2021), 388쪽.

하지만 미8군 기념병원의 제안을 받자마자 와이스는 마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움직였다. 한국에 파견된 지 불과 몇 달이 지났을 때였다. 건축위원장으로서 그는 이 기념병원의 병상 규모를 늘리고, 기념병원 공사를 세브란스병원 전체의 이전과 연결시켰다. 환율 문제로 인한 공사 중단을 극복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와이스는 이 과정에서 재단보다는 오히려 세브란스측의 입장에 섰으며, 의과대학과 간호학교 건물을 위해서는 재단 외의 다른 지원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접촉하였다. 신촌으로의 이전 과정에서 모든 이들이 노력하였겠지만, 특히 김명선과 와이스의 행동은 개인의 헌신이 기관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둘째는 세브란스-연희-재단 사이의 역사적인 맥락이다. 신촌에 연세의료원이 자리 잡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연희대학교와의 합동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두 학교의 초창기를 되돌아보면 에비슨은 언더우드의 권유로 내한하였고, 언더우드가 설립하여 교장을 맡은 경신학교 대학부의 부교장이 되었다. 언더우드가 사망하자 에비슨은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양교의 교장을 18년이나 겸임하였으며, 양교 교직원들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이에 따라 에비슨이 교장을 겸임하던 1929년에는 양교의 합동이 논의되었다. 양교 합동은 해방 직후에도 재론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다시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합동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 외에도 두 학교는 협동재단(CB)-연합재단(UB)으로 묶여 있었다. 1918년에 연희대학과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를 위해 뉴욕에서 설립된 협동재단(CB)과 그 후신인 연합재단(UB)에서는 앞서 살폈듯이 경제적인 후원과 함께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촌으로의 이전에도 직접 관여하였으며, 양교의 합동이 난관에 봉착하자 연합재단에서는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신촌 의료원의 건축위원으로 포함된 원일한(Horace Grant Underwood Jr.)이[101] 연희대학교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상징한다면, 북장로교 선교부의 크레이튼이 공사 착수 직후에 내한하여 건축을 지휘하였다는 점은 재단의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신촌에 의료원이 한창 건설 중이던 1960년 12월 21일 뉴욕에서는 CMB와 연합재단(UB) 인사들이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다. 여기에서는 외래진료소 건설을 위해 서울역 앞 세브란스 부지를 매각하는 문제까지도 논의하였다.[102]

---

1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63쪽.
102)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2015, 187쪽.

이와 같은 세브란스-연희-재단 사이의 오래된 관계의 중심에는 '기독교 기관'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큐란은 자신의 보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세브란스병원은 동아시아를 통틀어, 개신교가 후원하는 유일한 기독교 의료센터로서 특수한 기관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103]

그러나 공유하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 연희, 재단의 입장이 언제나 일치할 수는 없었다. 세브란스와 연희의 합동에는 상당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고, 신촌 이전을 둘러싸고 세브란스와 재단의 의견은 똑같지 않았다. 세 기관의 여건과 관심사는 상이했으며, 이러한 상이함을 조정해나가는 과정의 종착점이 1962년 연세의료원의 개원이었던 것이다.

셋째는 스트러더스, 미8군, CMB, 환율 문제와 같은 외부 요소이다. 아마도 김명선이나 양교·재단의 의지만으로는 신촌으로의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흉부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브란스병원에 파견된 스트러더스, 전사자 추모를 위해서 기념물 대신 기념병원을 구상한 미8군, 의과대학 건축을 지원한 CMB, 공사를 1년 넘게 중단시킨 환율 문제 등은 세브란스 내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세브란스로서는 우발적인 이들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의 성취를 이루었을 뿐이다.

세브란스의 대응에 대해서는 1962년 와이스가 「건축보고」에서 잘 설명한 데다, 이 글 본문에서도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오히려 중요한 점은 우연처럼 보이는 이들 요소를 한국 현대사 혹은 의료사의 전개 과정에서 표출된 필연적인 파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트러더스가 한국에 파견된 것은 기독교세계봉사회에서 전개한 결핵퇴치 사업의 일환이었고, 미8군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세브란스병원 내에 노무자병원을 설치한 경험 위에서 세브란스와 새로운 흉곽병원 사업을 전개한 것이었다. CMB에서는 중국 공산화 이후에 중국에서의 사업을 대체할 곳으로 한국의 세브란스를 지목했으며, 공사를 가로막은 1956년의 환율 문제는 고정환율과 변동환율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결부된다. 신촌 의료원의 건설 과정을 한국 사회의 변동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

103) Curran, 「Medical Educational and Hospital Activities」, 1963(허정, 2021). 큐란(Jean Curran)은 롱아일랜드의과대학(Long Island Medical School) 학장 출신으로 미 육군성과 WHO 고문을 역임하였다. 그는 CMB의 의뢰로 1961년과 1963년에 각각 3개월씩 세브란스에 체류하면서 세브란스의 행정과 경영체제, 병원 운영, 학교 실태 등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안하였다(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2015; 허정,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의 탄생」(수고본), 2021).

넷째는 1950년대에 세브란스가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인 성격이다. 이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발전 전략과 세계 의학과의 격차에 대한 대응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환경이 일제하에는 억압적 방식이었다가 해방 이후에는 냉전체제하의 자유경쟁으로 바뀌었다. 제도적 규율에서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낡은 시설과 좁은 부지'로 묘사되던 세브란스에도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합동 직후인 1957년 3월 2일의 동문회 총회에서 백낙준 총장이 정곡을 찔렀다. 그는 "오늘의 세브란스 시설로서는 현대의 병원과 의과대학으로서의 면목을 상실할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이번 합병의 실시는 의학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대의 의과대학 시설을 갖춤에 있다"라고 지적한 후 앞으로 2년간에 걸쳐 현대적 시설의 완비를 위해 4,500,000달러를 더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104] 앞서 살폈듯이 협동재단(CB)의 펜이 "현상태의 세브란스의과대학을 그대로 두면 학교의 질적 저하는 물론 다른 의과대학과의 경쟁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었다. 경쟁관계에 있던 경성제대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는 해방 직후에 이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된 상태였다. 당시 세브란스로서는 도태와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의료원의 건설과 함께, 세브란스로서는 교수진의 확보와 진료과목의 확대 역시 필요했다. 이것은 미군정을 통해 이른바 '미국 의학'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에 부합하는 과정이었다. 예컨대 1950년대 후반에 의과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이경식에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집안 어른이 앞으로는 미국 의료의 시대가 온다면서 미국식 의료를 배우는 세브란스를 추천하였다.[105]

따라서 이 무렵에는 개인적인 유학을 비롯하여 한미재단(AKF)과 CMB의 지원프로그램 등에 힘입어 미국 유학이 붐을 이루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임상병리학을 공부하던 이삼열은 세브란스로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며, 김명선은 유학을 떠나려는 유재덕에게 "미국에 가서 남이 안 하는 분야를 하고 와. 아주 희귀한, 남이 안 하는 분야를 하고 와. 우리나라에 필요할 거야"라고 충고하였다.[106]

세브란스의 적극적인 선진의학 따라잡기(Catch up)는 이 무렵 '미국 의학' 수용의 또다른 통로였던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의식한 움직임으로도 이해된다. 해방 후의 대표적인 의

104) 연세창립80주년기념 사업위원회, 『연세대학교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3판), 833-834쪽.
10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편, 『한국 의학의 길을 원로들에게 묻다 1』(역사공간, 2021), 266쪽.
10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편, 『한국 의학의 길을 원로들에게 묻다 1』(역사공간, 2021), 57, 216쪽.

학자 연수프로그램인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수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107] 의학의 표준을 독일 의학에서 미국 의학으로 급격히 변경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은 경쟁관계인 세브란스를 더욱 자극하는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세브란스 입장에서는 세계 의학과의 격차를 줄이는 발전 전략이 주로 미국 의학의 수용 문제로 치환되었다. 그러나 세브란스가 미국 의학을 지향했던 이유가 해방과 미군정이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의과대학 건축을 지원한 CMB의 입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CMB에서는 1953년 이래 지속적으로 세브란스를 지원했으며 로즈(Paul S. Rhoads, 1956년), 화이로(Warfield M. Firor, 1957년과 1958년), 큐란(Jean Curran, 1961년과 1963년)을 연이어 세브란스에 파견하여 자문을 실시하였다. 큐란보고서를 살펴보면, 세브란스병원과 의과대학의 진료·교육·연구 전반에 대해서 모두 깊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표준은 이들 자문관들이 몸을 담고 있는 미국 의학이었다. CMB에서는 세브란스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함께 미국 연수프로그램도 오랫동안 운영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록펠러재단이 설립한 CMB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중국 공산화였다. 동서냉전의 시기에 해당한다. 냉전은 미국 내에서 정부-민간기관-교육기관 사이에 아주 긴밀한 협조를 불러왔다. 록펠러재단을 포함한 카네기재단·포드재단 등의 민간기관과 하버드대학 등의 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108] 즉 CMB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체제의 일환으로 세브란스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CMB의 자금 지원이나 큐란 등의 자문을 매개로 세브란스의 진로는 미국 의학과 더욱 가까워졌다.

이상에서 신촌 연세의료원을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을 논의하였다. 연세의료원 내부 여건으로서는 개인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 외부 여건으로서는 사회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였다. 이제는 1962년 연세의료원의 출범을 단순히 한 의료기관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다.

---

107) 미국 해외운영본부(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의 원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1954년부터 교육부문에 대한 원조도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는데, 그 사업의 시작이 바로 미네소타 프로젝트였다(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8-19쪽).

108) 피터 버크, 박광식 옮김, 『지식의 사회사 2 -백과전서에서 위키백과까지-』(민음사, 2017), 362-364, 377쪽.

연세의료원 내부요인[內因]과 외부요인[外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구 시야를 확장할 때 연세의료원의 역사적 함의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핵심어: 신촌,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의과대학, 의료기관

논문 투고일: 2022.4.28.	심사 완료일: 2022.5.21.	게재 확정일: 2022.5.25.

참고 문헌

1. 자료

「Ernest W. Weiss가 보낸 서신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M10108275, M가1679)

「China Medical Board와의 교류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A가2010100006703635)

「China Medical Board of New York가 보낸 서신철」(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M10108145 M가1549)

의과대학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보고 1956년 4월~1957년 3월」, 1957(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863)

세브란스병원장, 「세브란스병원장 보고 1956년 4월~1957년 3월」, 1957(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1863)

「YONSEI UNIVERSITY BULLETIN General Catalogue Number 1959-1960」(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Se Hee Ahn, 「Academic and Physical Planning of Yonsei University」, 1971(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延世메디칼센터 工事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延世메디칼센터 建築略歷」(『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행정책임자 회의록 1962.08~1963.08』(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법인이사회 의과대학 위원회 회의록」(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연세대학교 의료원 봉헌 예배 순서」(「의료원장실 자료 7」,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재정사 자료철」(동은의학박물관 소장)

Smith, Hinchman & Grylls Associates, Inc, 「MASTER PLAN -YONSEI UNIVERSITY YONSEI MEDICAL COMPLEX」, 1957(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연희춘추』

Stars and Stripes

2. 연구 저서·역서

박두혁, 『영원한 세브란스인 김명선』(김명선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1998)
박형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탄생했는가』(공존, 2016)
백낙준, 『백낙준 전집 3 : 연세 교육의 이상』(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양재모, 『사랑의 빚만 지고……』(큐라인, 200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간호를 선도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00년사』(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08)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역사위원회, 『연세간호 : 한국 간호교육의 산 역사 1906~1970』(연세대학교 간호대학, 201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정사』(1982, 개정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엮음, 『세브란스 선교사 편람』(역사공간, 201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편, 『한국 의학의 길을 원로들에게 묻다 1』(역사공간, 2021)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백년사 1』(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연세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연세대학교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3판)(초판 1969)
연세학풍연구소 편, 『내일을 걷는 연세 역사』 제2판(개정)(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피터 버크, 박광식 옮김, 『지식의 사회사 2 –백과전서에서 위키백과까지-』(민음사, 2017)
힐다 세이터 와이스, 안종희 옮김, 『의료선교사 와이스 부부의 헌신』(청년의사, 2010)

3. 연구 논문

여인석,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본 CMB의 한국의학 재건사업」, 『연세의사학』 18(1), 2015
여인석, 「연세합동과 의료원 체제 이후의 선교활동(1957-1993)」, 『연세의사학』 18(1), 2015
이왕준,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허정, 「신촌 세브란스 의료원의 탄생」(수고본), 2021
허정, 「신촌 의료단지의 탄생과 어네스트 와이스 외과교수」(수고본), 2022

Abstract

A Chronological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Shinchon

Lee Kyung-Rok*

This article chronologically traces the documents o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Shinchon. In this article, I trace the process from right after the Korean War in 1953 to the establishment of Shinchon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1962 based on data and research papers inside and outside the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1955, the primary reason for locating the new medical center in Shinchon was the construction of a 60-bed Chest Hospital for tuberculosis treatment As the construction progressed, the outpatient clinic was built as a separate building and the Severance Medical School and Nursing School buildings were moved to Shinchon. This was achieved by selling the Severance building in front of Seoul Station as well as raising donations from other exter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ally.

The launch of Shinchon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1962 goes beyond the history of a medical institution; the larger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center become clearer when we consider a number of factors inside and outside the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Therefore, four factors must b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Shinchon: the personal and historical internal factors and the social and structural external factors.

Keywords: Shinchon,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Severance Hospital, Severance Medical School, medical institution

*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Division of Medical History,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